

# 한화종합화학 최웅진 대표이사 선임

## 한화그룹, 대표이사 6명 포함 임원인사 ... 드림파마는 조창호 대표이사

한화그룹은 2007년 1월1일자로 계열사 대표이사 6명을 선임하는 등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다고 12월 25일 발표했다.

또 그룹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고 경영기획실로 슬림화하는 등 조직을 개편키로 했다.

계열사 대표이사로는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에 최웅진 전 구조조정본부장을, 드림파마 대표이사에 조창호 전 한화종합화학 대표, 한화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에 이경로 전 대한생명 상무, 한화리조트 대표이사에 홍원기 전 한화테크엠 대표, 한화테크엠 대표이사에 차남규 전 대한생명 중국 주재임원, 한화S&C 대표이사에 김관수 전 한화리조트 대표를 각각 발령했다.

신임 한화테크엠 차남규 대표이사는 한화그룹 계열사였던 한국베어링 출신으로 골든벨상사 등에서 무역영업을 담당했던 상사맨 출신이며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이후에는 대생의 관리총괄 임원으로 근무했고, 대생의 중국진출 시 중국주재 임원을 역임한 국제 영업통이다.

신임 이경로 한화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는 한화증권의 전신인 제일증권에 입사해 법인영업과 채권부, 투자분석부, 인력부 등을 두루 경험한 자산운용 전문가로 대한생명에서는 투자담당 겸 증권시장 사업부장을 경험했다.

승진자로는 최상순 한화 사장이 부회장으로, 한화테크엠 홍원기 전무는 한화리조트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박석희 전 한화S&C 대표이사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대한생명 경영지원실장으로 발령났다.

홍기준 전 드림파마 대표이사는 한화석유화학 부사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한화는 임원인사에 대해 2007년부터 기업통합이미지(CI) 개편에 맞춰 김승연 그룹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경영전략인 글로벌 경영, 신 성장동력 발굴, 인재경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전진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반적인 내수위주의 그룹 분위기를 쇄신하고, 계열사의 젊은 CEO를 순환 배치해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그룹 구조조정본부도 8팀 1실 체제에서 경영기획실장 이하 투자운영, 전략홍보, 법무의 3담당 부사장 체제로 조직을 대폭 슬림화했다.

그룹 경영기획실장에는 금춘수 전 대한생명 경영지원실장을 신임 발령했고 재무·인사를 관장할 투자운영담당 부사장에는 홍동욱 전 그룹 구조조정팀장, 기획·홍보·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전략홍보담당 부사장에는 장일형 전 그룹 홍보팀장, 법무담당 부사장에는 채정석 전 법무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직개편은 기존 구조조정본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계열사들의 자율경영을 강화해 대표이사의 업무추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기획실은 신 성장동력의 발굴과 글로벌경영 추진, 하이브리드 경영 등 그룹 차원의 주요 경영전략 추진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대표이사 발령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최웅진 ▲드림파마 대표이사 조창호 ▲한화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이경로 ▲한화리조트 대표이사 홍원기 ▲한화테크엠 대표이사 차남규 ▲한화S&C 대표이사 김관수

◇부회장 승진 ▲한화 부회장 최상순 ◇부사장 승진 ▲한화리조트 대표 홍원기 ▲대한생명 경영지원실장 박석희 ◇부사장 전보 ▲한화석유화학 부사장 홍기준 ▲그룹 경영기획실장 금춘수 ▲경영기획실 투자운영담당 홍동욱 ▲경영기획실 전략홍보담당 장일형 ▲경영기획실 법무 담당 채정석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6>